

폴란드 사무소/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7월 3주 ~ 7월 4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폴란드 경제 동향

○ 폴란드 중앙은행, 기준금리 3.75%로 동결(7.8)

- 폴 중앙은행 NBP 통화정책위원회 MPC는 7월 8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75%로 동결
- 기준금리는 지난 2026년 3월 이후 3.75%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4개월간 총 200bp(2.0%p) 인하를 통해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으로 전환된 상태
-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시장에서는 2026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

○ NBP, ETS2 시행 시 물가상승률 최대 2%p 추가 상승 전망(7.10)

- NBP는 2028년 도입 예정인 EU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안 ETS2이 시행될 경우, 폴란드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최대 2%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
- 다만 7월 물가전망에는 관련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향후 탄소배출권 가격도 확정되지 않아 ETS2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ETS2는 기존 발전·산업 부문에 적용되던 EU 배출권거래제 ETS를 운송 및 건물 난방 부문까지 확대하는 제도로,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

○ 폴란드, 2026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CPI 2.5% 기록(7.15)

- 폴 통계청(GUS)은 2026년 6월 CPI 전년 동월 대비 2.5%를 기록했다고 발표, 지난 6월 말 발표된 잠정치와 동일한 수준
- CPI는 4월 3.2%, 5월 3.1%에서 6월 2.5%로 둔화 점진적인 안정세를 보임

○ 폴란드, 6월 산업생산 전년 대비 7.6% 증가, 시장 전망 상회(7.20)

- GUS에 따르면, 2026년 6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7.2%)를 상회

- 제조업 생산은 전년 대비 6.4% 증가했으며, 광업·채석업은 전년 대비 28.3%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유지
- 전기·가스·증기·공조 부문은 전년 대비 16.4% 증가(5월 12.8%), 상하수도·폐기물 관리 부문은 전년 대비 14.7%, 전월 대비 3.6%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

○ 우 중앙은행(NBU), 기준금리 15% 유지 전망(7.15)

- 우크라이나 금융분석기관 ICU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이 기준금리를 현행 15% 수준으로 2027년 1분기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
- ICU는 2026년 6월 일부 식품 가격의 계절적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7~8월 추가 가격 하락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으며, 주요 상품·서비스 가격 및 근원소비자물가지수(Core CPI)의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물가 압력을 시사한다고 평가
- ICU는 우크라이나의 연간 물가상승률이 2026년 하반기에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연말에는 9%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으며, 이후 점진적인 안정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우크라이나, 6월 기업경기 회복세 소폭 개선(7.16)

- 우크라이나 경제연구소(IER)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업활동회복지수(Business Activity Recovery Index, BIRI)는 -0.14를 기록해 전월(-0.17) 대비 소폭 개선
-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0)을 하회하며 기업 체감경기가 위축된 상태를 지속
- 기업활동이 전년 대비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0.6%로 전월(24.4%) 대비 감소, 전체 기업의 63%가 정상 또는 정상에 근접한 수준으로 가동 중이라고 응답, 전월(57%) 대비 상승했으며, 신규 수주 잔고도 평균 2.8개월로 확대(전월 2.4개월)되는 등 일부 운영지표가 개선
- 향후 2년간 사업 전망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38.2%로 전월 대비 5.3%p 하락해 장기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

○ 폴란드 정부, 7월 중 소형모듈원전(SMR) 로드맵 발표 예정(7.8)

- Wojnarowski 에너지부 차관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로드맵이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당초 6월 말 공개 계획에서 다소 지연됐으나 현재 최종 단계에 있다고 설명
- 에너지부는 SMR 로드맵에 발전차액계약(CfD) 및 정부 보증 등 국가 지원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며, 이 같은 공적 지원은 향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국가보조금 승인을 거쳐야 함

○ GDDKiA, Sztum 우회도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Trakcja 선정(7.8)

- 폴 GDDKiA은 국도 55호선(Sztum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Trakcja를 선정했으며, 낙찰금액은 218.4백만 즈워티
- 계약은 2026년 3분기 체결될 예정이며, 동절기(12월 16일~3월 15일)를 제외한 2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9년 2분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 Sztum 우회도로 사업은 폴란드 정부의 '2020~2030년 우회도로 건설 프로그램(100 Bypass Construction Program)'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 도로 인프라 사업임

○ 폴 PSE, 전력 인프라 보호 강화를 위해 국토방위군과 협력 확대(7.7)

- 폴 송전망 운영사 PSE는 제2 루블린 국토방위여단과 전력 인프라 보호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
- 이번 협약은 PSE가 군 및 국가 안보·위기관리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는 후속 조치로, 2025년 12월 폴란드군 총참모부와의 협력 체결에 이어 국토방위군과의 협력을 공식화한 첫 사례임

○ EIB, 프랑스 BPCE와 폴란드 기업 녹색전환 지원 위한 2억 유로 금융 프로그램 착수(7.8)

- 유럽투자은행(EIB)은 프랑스 금융그룹 BPCE 산하 BPCE Equipment Solutions Polska와 1억 유로 규모의 첫 번째 금융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총 2억 유로 규모의 폴란드 중소기업 및 녹색전환 지원 프로그램의 첫 단계임

- 지원 자금은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폐기물 관리,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산업·농업용 설비 도입 등 친환경 투자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
- EIB 그룹은 2022~2025년 동안 폴란드 중소기업 대상 간접금융에 총 26억 유로를 지원했으며, Santander Consumer Bank, BNP Paribas Leasing Services, Crédit Agricole Bank Polska, Vehis 등과 협력해 SME 금융 접근성 확대를 추진
- 폴 코샬린시, 3억 즈워티 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시공사 선정(7.9)
 - 코샬린시 환경관리공단 PGK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입찰에서 AB Industry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계약 규모는 301.3백만 즈워티
 - 신규 소각시설은 2030년 중반 준공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연간 3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코샬린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
 - 운영 시 연간 17만 GJ 이상의 열에너지와 11,000MWh 이상의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에어버스, 크라쿠프에 민간항공 엔지니어링센터 설립 추진(7.9)
 - 에어버스는 2026년 10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크라쿠프에 민간항공 엔지니어링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연구개발 거점으로 글로벌 민간항공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
 - 회사는 2030년까지 폴란드 내 연간 투자·조달 규모를 2023년 대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며, 크라쿠프 센터를 폴란드 내 핵심 R&D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
- CPK 첫 고속철도 구간 건설 입찰 본격화, 17개 기업·컨소시엄 경쟁(7.10)
 - CPK는 바르샤바-우치 고속철도(Y 노선) 핵심 구간인 Kotowice-신공항 허브 13km에 대한 설계·시공 사업의 경쟁적 대화 단계에 총 17개 기업(6개 입찰주체)을 선정하며 사업을 본격 추진
 - 입찰 참여 기업은 ▲Budimex ▲Torpol·Mirbud·Kobylarnia ▲Trakcja·PORR ▲Mostostal Warszawa·NDI·NDI Sopot·Intercor ▲ZUE·Duna Polska·Polacqua

▲Gülermak·TrackTec Construction·Unibep·PPM-T 등이 참여

- 사업자는 실시설계 및 기술·시공도서 작성과 함께 최고 설계속도 시속 350km급 고속철도 13km를 건설하고, 기존 철도 1호선 및 85호선과의 입체 연결, 코토비체 일대 선로 확장 등을 수행할 예정
- 사업 범위에는 총 37km 규모의 신규 선로, 차량기지·유치선·기술 지원 시설, 교량·철도 및 도로 고가교·동물통로 등 구조물 55개, 기술·접속·공공 도로 약 40km 건설이 포함
- CPK는 향후 ▲바르샤바 자호드니아-코토비체(18km·터널) ▲볼리무프 분기점(12km) ▲볼리무프-브제지니(37km) ▲브제지니-우치(11km) 등 후속 구간 입찰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 2027년 4분기 최종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르샤바-우치-신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는 2032년, 이후 포즈난·브로츠와프까지 연장되는 폴란드 최초의 고속철도망은 2035년 개통을 목표

○ PGE EKO, 슈체친 철도 전력공급 인프라 구축 계약 체결(7.10)

- 폴 철도 전력 운영사 PGE Energetyka Kolejowa Operator는 Atrem과 El Professional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슈체친 항만 중앙(Szczecin Port Centralny) 주전력공급소(GPZ) 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
- 사업에는 주전력공급소(GPZ) 건설과 함께 전력 공급 인프라, 송전선 및 통신 케이블 구축 등 철도 전력공급 기반시설 조성이 포함되며, 공사는 2027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 Atrem의 계약 지분은 약 123백만 즈워티 규모이며, 이번 사업은 슈체친 항만 및 철도 물류 거점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 인프라 투자로 평가됨

○ DL Invest, 옛 피아트 공장 부지에 산업·AI 테크노파크 조성 추진(7.8)

- 폴란드 개발업체 DL Invest Group은 비엘스코비아와(Bielsko-Biała) 소재 옛 Fiat·Stellantis 공장 부지(52ha)에 산업·AI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계획, 총 투자 규모는 약 100억 즈워티로 추산
- 프로젝트는 향후 12개월 내 1단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제조시설과 연구

개발, 데이터센터, AI 인프라를 결합한 복합 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

- 부지에는 기존 생산시설 270,000m²와 자체 변전소(GPZ), 전력·가스·상수·공업용수 등 산업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이를 활용해 신규 부지를 개발하는 대신 기존 산업시설을 첨단 기술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
- AI 데이터센터는 총 125MW 규모의 전산 처리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운영은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합작법인(DL Boosteroid)이 담당할 예정

○ PSE, 발트해 해상풍력 계통연계 핵심 변전소 준공, 530백만 즈워티 투자 완료(7.10)

- 폴 송전망 운영사 PSE는 Osieki Lęborskie에 건설한 400kV Choczewo 변전소와 Żarnowiec 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 인프라를 완공하고 공식 가동을 시작
- 총사업비는 약 530백만 즈워티이며, 전액 EU 재건기금(KPO)으로 조달, 이 중 약 140백만 즈워티 규모의 계약은 폴란드 기업이 수행
- Choczewo 변전소는 현재 Baltic Power社가 해상풍력단지가 연결, 2027~2028년에는 PGE·Ørsted의 Baltica 2와 Ocean Winds(Engie·EDP Renewables)의 BC-Wind 등이 추가로 계통에 연결될 계획

○ NATO, 폴란드에 270억 유로 규모 전략 연료 파이프라인 연장 사업 추진(7.10)

- NATO가 동부전선 군수지원 및 연료 공급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서독까지 구축된 군용 연료 파이프라인을 폴란드 및 발트 3국 방향으로 연장하는 총 270억 유로 규모의 사업을 추진
-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앙카라 정상회의 이후 해당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유사시 동부전선에 대한 연료 보급과 군사기동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설명

○ 폴란드, 첫 해상풍력발전단지 전력 생산 개시(7.10)

- 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발전단지인 발틱파워(Baltic Power, 1.2GW)가 국가 전력망에 처음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단계적 상업운전을 개시
- 발틱파워는 폴란드 국영 에너지기업 오를렌(Orlen)과 캐나다 노스랜드파워(Northland Power)가 공동 개발 중인 사업으로, 총 76기의 해상풍력 터빈을 설치하며 이 가운데 54기가 이미 설치 완료됨

- 발전 전력은 신규 구축된 Choczewo 400kV 변전소를 통해 국가 전력망으로 송전되며, 해당 변전소는 향후 추가 해상풍력단지와 연계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
- 초체보 변전소 건설에는 약 530백만 즈워티가 투입됐으며, 폴란드는 2027년 상반기까지 추가 송전망을 확충해 해상풍력 계통 연계를 확대할 계획
- 발틱파워는 올해 가을 준공 예정이며, 완공 시 150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용량 확보가 가능함

○ KGHM,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위해 64백만 즈워티 정책금융 지원 확보(7.13)

- 폴 최대 구리 생산기업 KGHM이 국가환경보호·수자원기금(NFOSiGW)으로 부터 64백만 즈워티 규모의 우대대출을 확보하고 총 19.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5개를 건설할 계획
- 해당 우대대출은 목표한 환경성과 달성 시 일부 탕감이 가능하며, KGHM은 2026년 2월에도 국책은행(BGK)으로부터 209백만 즈워티 규모의 대출을 확보해 94MW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음

○ 폴란드, 바르샤바에 유럽우주국(ESA) 센터 유치(7.13)

- 폴 정부와 유럽우주국(ESA)은 바르샤바를 폴란드 내 ESA 센터 소재지로 최종 선정했으며, 동 센터는 EU 동부전선 국가 최초의 ESA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
- 폴란드는 2025년 말 ESA와 의향서를 체결하고 ESA 임무 수행을 위해 총 731백만 유로를 출연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약 550백만 유로는 2026~2028년 Optional Programmes에 투자할 예정

○ 스위스 Capri Sun, 폴란드에 70백만 유로 규모 생산공장 건설 추진(7.10)

- 스위스 음료기업 Capri Sun이 70백만 유로를 투자해 폴란드 Stargard에 신규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 2027년 말 1단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 폴란드, AI 기가팩토리 유치 위해 4억 즈워티 이상 출자 확정(7.14)

- 폴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4억 즈워티 이상의 정부 출자를 확정하는 결의안을 채택, EU의 AI Gigafactory 구축 사업 입찰에 공식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EU 집행위원회는 AI 기가팩토리 5곳을 지원할 예정이며, 입찰은 7월 20일 이후 EuroHPC JU(유럽 고성능컴퓨팅 공동사업단)가 공고할 예정
 - 컨소시엄 대표와 데이터센터 운영사는 EU에 본사를 두고 유럽 자본이 지배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참여 기업들은 희망하는 EU 회원국에 기가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음
 - 폴 정부는 현재 7개 EU 회원국과 공동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을 협의중이며, 참여국 명단은 협상 종료 후 공개할 예정
- **Tauron Ciepło, Wolbrom에 가스 열병합발전소 건설 추진(7.14)**
- 폴 에너지기업 Tauron Ciepło는 Wolbrom에 약 4MWt 규모의 가스 연료 열병합 발전 설비를 건설 중이며, 총 사업비는 약 10백만 즈워티로 추산
 - 신규 설비는 고효율 열병합발전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 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EU 배출권거래제(EIS) 비용이 면제되는 것이 주요 특징
- **Budimex 참여 컨소시엄, 체코 D35 고속도로 PPP 사업 최저가 입찰 제출(7.14)**
- Budimex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체코 D35 고속도로 Opatovec-Mohelnice 구간 건설·운영 PPP 사업 입찰에서 최저가 제안을 제출
 - 컨소시엄은 Budimex, Cintra Global SE, STRABAG Motorway GmbH, Invesis BV로 구성됐으며, 제안 금액은 713억 2,384만 체코 코루나(약 4.9조원)임
- **폴란드 국가재건계획(KPO) 6차 개정안 의결, 공간계획 이행요건 완화(7.14)**
- 폴란드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국가재건계획(KPO) 6차 개정안을 의결
 - 기존에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80%가 공간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했으나, 이를 30%로 완화하고 이행기한도 2026년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
 - 폴란드는 6월 26일 약 338억 즈워티 규모의 KPO 8차 지급 신청을 제출했으며, 현재 KPO를 통해 총 547억 유로(보조금 253억 유로, 저리융자 294억 유로)를 배정받은 상태
 -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기준 폴란드에 341.5억 유로(전체 배정액의 62%)를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197억 유로는 저리융자에 해당함

○ 폴, 25억 달러 규모 Świnoujście 심해 컨테이너항 건설 프로젝트 착수(7.14)

- 폴 정부는 북서부 항만도시 Świnoujście에 총 25억 달러(약 100억 즈워티) 규모의 심해 컨테이너항 건설사업인 'Cape Pomerania' 프로젝트를 공식 착수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 신규 항만은 대형 원양 컨테이너선 접안이 가능한 친환경·민군겸용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며, 중·동부 유럽 지역의 물류 수요를 지원하고 폴란드의 해상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

○ Pesa, 그단스크에 524백만 즈워티 규모 신형 트램 20대 공급 추진(7.15)

- 폴란드 철도·트램 제조업체 페사(Pesa)는 그단스크 대중교통공사(GAiT)가 발주한 신형 트램 도입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총 계약 규모는 524.1백만 즈워티로 집계됨
- 사업 재원은 국책개발은행 BGK가 제공하는 EU 국가재건계획 KPO 기반 저리 대출로 조달되며, EU 지원사업 기준에 따라 폴란드 공공조달청(UZP)의 사전 심사와 국가항소심의원(KIO)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계약이 체결될 예정

○ Port Polska-Energa Operator, 고속철도·전력망 연계 협력협약 체결(7.15)

- Port Polska와 Energa Operator는 고속철도(HSR) 및 전력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협약을 체결했으며, 정보 공유 체계와 인프라 조정 절차, 비용 분담 원칙을 마련
- 협약은 CPK 사업의 핵심 노선인 바르샤바-우치-포즈난·브로츠와프를 연결하는 'Y자 노선'과 신공항-트리시티를 연결하는 'CMK-북부(CMK-Północ)' 구간을 대상으로 함
- Energa는 향후 전력망 구축 시 CPK 계획을 반영해 지중화 방식을 우선 적용, 110kV 송전망의 경우에도 전선 높이 상향 등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할 계획

○ Orlen, GA Polyolefins 사업 인수 통해 1,183백만 즈워티 지원, 채무 상황에 우선 사용(7.11)

- Grupa Azoty Police는 Orlen이 GA Polyolefins을 총 1,183백만 즈워티 규모로 지원하는 거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거래는 채권단과의

구조조정 합의 최종 승인과 Orlen의 지분 인수 및 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연계 거래로 구성됨

- 지원 자금은 채무조정 대상 부채 감액 후, 2025년 11월 28일 이전 발생한 비조정 채무 및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미지급금 118백만 즈워티 상환에 우선 활용될 예정임
- Orlen 측은 이번 거래가 GA Polyolefins 사업의 부채 자체를 직접 인수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함
- GA Police는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인 'Polimery Police' 투자로 인해 채무 부담이 확대됐으며, 이와 관련한 손상차손이 지난해 실적에 반영됐다고 설명, 다만 일회성 손상 요인을 제외한 조정 EBITDA는 57백만 즈워티로 흑자를 기록해 전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회사 측은 Polimery Police에 자금이 집중되며 기존 생산설비의 보수·설비 투자가 제한됐다고 밝히고, 현재 설비 안정성 및 환경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유지·보수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 아울러 경영진은 과거 투자 및 채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법규 위반 또는 경영진의 책임 소지가 확인될 경우 관계 당국 통보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힘

○ 폴란드, 바이오메탄 ESS 지원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법(RES Act) 개정 추진(7.15)

- 폴란드 의회는 「재생에너지원법(RES Act)」 개정안(UD32)을 채택, 설비용량 1MW 초과 바이오메탄 생산시설에 대해 경매(Auction) 방식의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최대 20년간 지원을 보장하기로 함
- 폴란드 기후환경부는 국내 바이오메탄 생산 잠재력을 연간 최소 32억^{m³}, 기술적으로는 최대 80억^{m³}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정부는 국가환경보호·수자원관리기금(NFOŚiGW)을 통해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분야에 총 40억 즈워티 규모의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세부적으로는 고효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프로그램 10억 즈워티와 지역에너지(Energy for Rural Areas) 프로그램 30억 즈워티가 포함됨
- 개정안은 바이오가스·농업용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운송을 위한 직접 연결

가스관(Direct Gas Pipeline) 제도를 신설하고, 자가발전 소비자의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활용 확대, 전력 정산체계 개선 및 에너지 협동조합 운영 효율화 방안도 함께 담고 있음

- 기후환경부는 경매제 도입 초기 단계에서 최소 53개의 신규 바이오메탄 설비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 120개 이상의 관련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라고 언급

○ ONDE, R.Power 계열사와 300MW급 BESS 건설 계약 체결(7.15)

- 폴 재생에너지 기업 ONDE는 R.Power 그룹 계열사와 300MW/1,200MWh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건설 계약 체결, 이번 계약 규모는 117.8백만 즈워티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임
- 사업 범위에는 발전설비 연계 공사와 400kV급 집전소 및 고압 송전선 건설이 포함, ONDE는 상세 설계, 자재·장비 조달 및 시공을 담당

○ MAN Truck & Bus, 폴란드 크라쿠프 공장에 12억 유로 투자(7.17)

- 독일 상용차 제조사 MAN Truck & Bus가 폴란드 정부와 Kraków 공장에 향후 10년간 약 12억 유로 투자를 위한 MOU 체결
- MAN은 차체(Body-in-White) 및 도장(Paint Shop) 설비를 신설하고 운전석(Cab) 조립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크라쿠프 공장의 생산면적은 현재 130,000m²에서 270,000m²로 약 2배 확대될 전망
- 이번 투자로 크라쿠프는 독일 뮌헨에 이어 MAN의 두 번째 전기트럭 생산 기지로 부상할 예정

○ 폴란드, 양수식 수력발전 Rożnów 2·‘Młoty’ 사업 검토(7.19)

- 폴 송전망 운영사 PSE는, 현재 양수식 수력발전 설비의 가용용량은 1,368MW 수준이며, 2036년까지 Rożnów 2(767MW) 및 Młoty(1,050MW) 사업이 추진될 경우 총 3,218MW로 확대되어 현 대비 135% 증가할 전망
- 국영 전력기업 Tauron은 두나예츠(Dunajec)강 인근에 767MW 규모의 Rożnów 2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을 재확인했으며, 저장용량은 약 3.1GWh, 총 사업비는 약 70억 즈워티로 추산되며, 2028년 이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
- Młoty 양수발전소(1,050MW)는 돌니실롱스크주(Bystrzyca Kłodzka 인근)에

건설될 예정으로, PGE(51%)와 국가 환경보호수자원기금(NFOŚiGW, 49%)이 공동 추진 중이며, 현재는 경제성·사업성 분석 단계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최소 70억 즈워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PSE는 두 사업 모두 송전망 접속조건은 발급했으나 아직 최종 계통연계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2035년까지 Młoty 연계용 400kV 송전선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제 착공 여부는 투자자 결정에 좌우될 전망
- 양수발전은 전력계통 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폴란드 2025년 양수발전 총 발전량은 1,186.3GWh,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양수 발전소는 Żarnowiec(716MW), Żar(540MW), Żydowo(157MW) 등이 있음

○ PGE Energia Odnawialna, 포롱브카-자르(Porąbka-Żar) 양수발전소 현대화 위해 KPO 자금 지원 확보(7.21)

- PGE Energia Odnawialna가 국가환경보호수자원기금(NFOŚiGW)과 국가재건 계획(KPO)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포롱브카-자르 양수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위한 152.6백만 즈워티 규모의 융자 지원을 확보
- 지원 대상은 '포롱브카-자르 양수발전소 상부 저수지 및 상·하부 취수시설, 도수터널(derivation tunnels) 현대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03.4백만 즈워티 규모임

○ Eiffel Investment Group·Ergy, 폴란드 BESS 시장 공동 진출(7.20)

- 프랑스 Eiffel Investment Group과 폴란드 재생에너지 개발사 Ergy가 폴 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투자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첫 사업으로 46MW/184MWh 규모의 바치나(Baczyna) 프로젝트를 추진
- 바치나 프로젝트는 폴란드 서부에 위치한 인허가 완료(Ready-to-Build) 사업으로, 계통연계접속 및 장기 용량시장(Capacity Market) 계약을 확보, 2028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함
- Eiffel은 장기 인프라 투자 역량을 제공하고, Ergy는 사업 발굴·개발·금융조달·건설 및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며, 양사는 향후 추가 BESS 사업 인수도 검토할 계획

4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

- 우, 재건 강화 계획 일환으로 자율형 상수도 시스템 구축 추진(7.8)
 - 우크라이나 지역사회·영토개발부는 회복력 강화 계획(Resilience Plans)의 핵심 과제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4개 주에서 29개 상수도 사업이 착수됨
 - 약 900km의 상수관로를 신설·현대화하고, 4,000대 이상의 최신 설비를 설치해 45MW 이상의 추가 전력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신규 펌프 설비는 하루 3백만~4백만m³의 용수 공급 능력을 갖출 예정
- 우크라이나, 1.5GW 규모 신규 발전설비 입찰 2단계 착수(7.8)
 - 우 정부는 1,505M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 구축을 위한 입찰 2단계를 개시
 - 사업 대상은 전력 공급이 취약한 하르키우, 수미, 폴타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오데사, 체르니히우, 키이우주 및 키이우시 등으로, 정부는 전력 피크시간(오전·저녁) 전력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는 지원 체계를 제공할 계획
 - 지난해 말 종료된 1단계 입찰에서는 총 78.1MW 규모의 민간 투자사업이 선정됐으며, 2단계에서는 지원제도를 개선해 2027년 말까지 1,505MW 전량 준공을 목표로 추진
- 우 Epicentr K, 친환경 농산업단지 조성 위해 350백만 달러 투자유치 추진(7.8)
 - 우크라 유통·농업기업 Epicentr K는 서부 우크라이나에 조성 중인 'Carbon-Neutral Eco-Agro Hub Podillia-Horodok' 사업 완공을 위해 350백만 달러의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 총사업비는 500백만 달러 규모로 이 중 150백만 달러는 자체 투자할 계획
 - 산업단지는 식물성 유지 추출공장, 바이오에탄올·바이오메탄 생산시설, 열병합발전소,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등을 포함한 농산물 가공 및 재생 에너지 복합단지로 조성
 - 현재 부지 조성과 기반공사, 주요 설비 건설이 진행 중이며, 각 시설은 2026년 4분기부터 2027년 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준공·가동될 예정
- 전후 키이우 창고시설 49만m² 손실, 물류부동산 시장 구조 변화 지속(7.9)
 - 전쟁 이후 2022~2025년 키이우 지역 창고시설 피해면적은 약 49만m²로

보고되었으며, 전체 창고 공급의 약 2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

- 2025년 11,000m² 이상의 창고시설이 복구됐고, 2026년에는 약 97,000m² 추가 복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1분기에는 33,000m²가 신규 공급됨
- 다만 물류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실률은 3.5%에서 3.0%로 하락해 물류창고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

○ Sunwind3, 키로보흐라드주에 105MW 규모 풍력발전단지 추진(7.9)

- 키이우 소재 Sunwind3는 키로보흐라드주에서 105.4MW 규모의 포크로우카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며,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
- 사업에는 6.2MW급 풍력터빈 17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발전단지의 설계 운영기간은 최소 25년으로 계획

○ CRH, 우크라 경량기포콘크리트 공장 인수 추진(7.10)

- 아일랜드 건설자재 기업 CRH는 현재 우크라 투자기업 BGV Group이 보유하고 있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AAC) 생산시설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가 기업인수 승인 신청을 심사 중
- 인수 대상은 BGV Group 계열 Poriston Group이 보유한 Obukhiv 및 Berezan 소재 AAC 생산공장으로, CRH 계열 Mykolaivcement가 지배권 취득을 신청

○ MHP, 빈니차주 첨단 낙농단지 건설 추진, 20.9백만 달러 투자 유치 계획(7.10)

- 우크라농식품기업 MHP는 Vinnytsia주에 젖소 2,500두 규모의 첨단 낙농단지와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시설 건설을 위한 총 20.9백만 달러의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
- 총사업비는 26.1백만 달러로, MHP는 자체 자금 5.2백만 달러를 투입하고 나머지 20.9백만 달러는 외부 투자자로부터 조달할 계획
- 프로젝트에는 연간 원유 생산량 28,500톤 규모의 낙농시설과 0.8MW급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설비가 포함되며, 축산 분뇨를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순환경제 모델을 적용

○ Energoatom, 우크라 유일 우라늄 생산기업에 555백만 호리우냐 지원(7.10)

- 우크라 국영 원전 운영사 Energoatom은 국가 유일의 천연우라늄 생산기업인 SkhidGZK에 생산시설 현대화와 우라늄 생산 확대를 위해 555백만 흐리우냐 규모의 용자를 제공할 예정
- SkhidGZK는 우크라 원전의 우라늄 원료 수요 약 40%를 공급하는 유일의 생산기업이자 유럽 최대 우라늄 정광 생산업체 중 하나이나, 2025년 매출 1,850백만 흐리우냐에도 불구하고 886백만 흐리우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이 과제로 지적
- 우 정부는 5월 SkhidGZK를 100% 국영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향후 Energoatom에 편입해 우라늄 채굴부터 원전 발전까지 아우르는 수직계열형 국영 원자력 그룹을 구축할 계획

○ 우, 51백만 달러 규모 바이오메탄 플랜트 4개 건설 추진(7.13)

- 우크라 기업 비타그로 에너지(Vitagro Energy)와 KG그룹(KG Group)이 총 51.6백만 달러를 투자하며 바이오메탄 플랜트 4기 건설 계획을 발표함
- 비타그로 에너지는 테르노필·흐멜니츠키·리우네 지역에 바이오메탄 플랜트 3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총 투자 규모는 35.9백만 달러로 연간 3백만m³의 바이오메탄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
- KG그룹은 폴타바주에 15.7백만 달러 규모의 바이오메탄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710만 달러를 자체 투자하고 나머지는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임

○ 우, 12억 달러 규모 도로 인프라 투자 추진, EU 운송시장 통합 가속(7.13)

- 우크라 정부는 12억 달러 이상 규모의 도로 인프라 투자사업을 추진하며, 전쟁을 계기로 물류체계를 EU 기준에 맞춰 재편하는 등 EU 단일 운송 시장과의 실질적 통합을 가속화
- EU의 연대 통로(Solidarity Lanes)를 통해 2026년 2월 기준 210백만 톤의 화물이 운송됐으며, 우크라 수입물량의 약 60%와 비농산물 수출의 약 60%가 해당 통로를 이용
- 철도 분야에서는 2024년 국경 간 화물운송량이 약 20% 증가했으며, EU는 73.5백만 유로를 지원해 리비우까지 연결되는 유럽 표준궤 철도 (Mostyska - Sknyliv) 건설을 추진 중

○ **EFI Group, 체르카시주 사료첨가제 공장 1단계 2027년 가동 추진(7.14)**

- 우크라 투자회사 EFI Group은 체르카시주에 건설 중인 고단백 사료 첨가제 및 동물성 유지 생산공장의 1단계 설비를 2027년 봄 가동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30%
- 1단계 사업에는 14.4백만 유로가 투자되며, 연면적 4,000m² 규모의 생산시설을 건설 중
- 프로젝트는 2025년 10월 착공, EFI Group은 네덜란드·덴마크의 식품 가공 기술·설비 기업들과 협력해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있음

○ **폴란드 국민 76%,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자국 기업 우대 지지(7.14)**

- 여론조사기관 IBRiS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의 76.4%가 전후 우 재건사업에서 폴란드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찬성
-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 야당 지지층의 82%, 여당 연정 지지층의 68%가 자국 기업 우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 폴란드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의 핵심 지원국으로, 3,000개 이상의 폴란드 기업(대부분 중소기업)이 우크라 재건사업 참여를 준비 중

○ **Euro Land UA, 테르노필주 미량비료 생산공장 건설 추진(7.15)**

- 우크라 농업기술기업 유로 랜드 UA(Euro Land UA)는 테르노필주에 현대식 미량 비료(microfertilizer) 생산단지 건설을 추진, 총 사업비는 13백만 달러로 추산
- 신규 공장은 연간 총 18,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으로, 액상 미량비료 1만 톤, 특수비료 5,000톤, 킬레이트 미량원소 제품 3,000톤을 생산 예정
- 사업 착수 후 약 18개월 내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 회수 기간은 약 4년으로 전망됨

○ **Eco-Optima, 39.6백만W 규모 리비우주 소칼 풍력발전단지 가동(7.14)**

- 우크라이나 에코-옵티마 그룹(Eco-Optima)은 리비우주 소칼(Sokal) 풍력 발전단지를 국가 전력망에 연결하고 본격적인 전력 생산 및 판매를 개시했으며, 총 설비용량은 39.6MW 규모
- 해당 발전단지는 총 7기의 풍력터빈으로 구성되며, 연간 약 122백만 kWh

전력을 생산, 해당 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는 40백만 유로로 Oschadbank가 금융을 지원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대비 판유리 생산 기반 구축(7.15)**

- 우크라이나는 전후 재건사업 확대에 따른 건축자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내 판유리 생산기반 구축을 추진, 2028~2030년부터 상업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우크라이나의 판유리 소비량은 11.2백만m²였으며, 향후 재건 수요 확대에 따라 생산 기반 확보가 주요 산업정책 과제로 부상
- 진행 중인 구축 프로젝트는 ▲키이우 인근 ‘시티 오브 글라스(City of Glass)’ 산업단지 ▲‘노바스클로(NovaSklo)’ 프로젝트(EFI Group) ▲자카르파티아(Zakarpattia) 지역의 ‘우크르글라스(Ukrglass)’가 있음

○ **스페인, 우 재건 참여 기업 지원을 위한 570백만 유로 금융패키지 가동(7.15)**

- 스페인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자국 기업 지원을 위해 총 570백만 유로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발표
- 이번 조치는 카를로스 쿠에르포(Carlos Cuerpo) 경제·통상·기업부장관의 키이우 방문 계기에 발표됐으며, 전후 최대 규모인 약 50개 스페인 기업 대표단이 동행
- 스페인 수출신용보험공사 CESCE는 우크라이나 수출거래에 대한 보증 한도를 기존 30백만 유로에서 250백만 유로로 8배 이상 확대
- 국영 개발금융기관 COFIDES은 국방·에너지·교통·수자원 인프라 등 전략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1억 유로 규모의 전용 신용공여 프로그램을 신설
- 또한 스페인 공식신용연구소 CO와 Raiffeisen Bank Ukraine는 스페인 기업과 협력하는 우크라이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백만 유로 규모의 공동 신용한도를 개설
- 기업국제화기금 FIEM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200백만 유로로 확대해 현재 4개 재건 프로젝트를 지원
- 양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Spain-Ukraine Business Council’를 출범, 관련 금융지원 이행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

○ 스페인 Indra, 우크라이나 항공교통시스템 재건 및 핵심 인프라 보호 지원 확대(7.15)

- 스페인 방산·기술기업 Indra Group은 우크라이나 항공항행서비스 공사(UkSATSE)와 MOU를 체결
- 인드라는 스페인 정부의 기업국제화기금 FIEM 용자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항공항행 인프라의 피해 현황을 평가, 재건 로드맵 수립과 함께 우선 투자 분야와 기술 수요를 분석하는 기본계획을 수행함
- 방산 및 핵심 인프라 보호 관련 회의에는 우 국영 철도공사 Ukrzaliznytsia, 국영 송전망 회사 Ukrenergo, 우 에너지기업 DTEK 등 주요 기관이 함께 참여
- 인드라는 앞서 ‘삼해(Three Seas) 이니셔티브-우크라이나 국가 플랫폼’과 협력 협정을 체결, 스페인 국방부로부터 우크라이나 장거리 전술레이더 (Lanza LTR-25) 공급 임무를 부여받는 등 재건 및 안보 분야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입지를 확대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BUCHA TECHNO GARDEN II’ 산업단지 지정(7.17)

- 우크라이나 내각은 키이우주(州) Bucha 지역 Myrotske에 조성되는 ‘BUCHA TECHNO GARDEN II’ 산업단지를 국가 산업단지 등록부 (Register of Industrial Parks)에 공식 등재
- 동 산업단지는 총 12.6헥타르 부지에 30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과일·채소가공·보존 산업과 농업기계·장비 제조기업 유치가 목표이며, 총 투자 규모는 약 710.2백만 흐리우냐로 추산

□ 주요 프로젝트 동향

①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 사업

① 석화(PDH/PP)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Grupa Azoty, ORLEN, 현대엔지니어링, KIND
- (사 업 비) 1,840백만불
- (사업내용)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
- (추진현황) '19.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20. 10월 금융종결
'25. 8월 발주처, EPC 관련 보증 회수(Bond Call)
'25. 10월 ORLEN,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
'25. 11월 현지SPC,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
'26. 3월 현지SPC-현엔-카인드 구조조정(안) 관련 합의 완료

- (주요동향) '26.3.30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회생안 제출하였으며,
'26년 상반기 중 폴란드 법원의 심의 결과 도출 예정

② Ursus 열병합 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KIND, 남동발전, 베올리아, BHI
- (사 업 비) USD 453백만
- (사업기간) 2026.2.~2054.12. (건설 38개월, 운영 25년)
- (주요내용) 전기 110MWe, 열 90MWt 규모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
- (추진현황) '23. 4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의결
'24. 1월~7월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F/S 컨설팅지원)
'25. 10월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 실시 (남동발전)
'25. 12월 KIND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26. 7월 금융종결 및 NTP 발급
'29. 8월 COD

- (주요동향) 주주 간 계약 등 주요 계약서 execution version 도출 협의

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GS건설, Cordia, KIND
- (사 업 비) PLN 83.34백만
- (사업내용) 총 전용면적 5,296m², 중형(수평분리) 및 대형주택(수직분리) 36세대 건설
- (추진현황) '25. 2월 GS건설-Cordia 공동개발 논의
'25. 3월 GS건설, KIND向 사업참여 요청
'25.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
'25. 9월 GS건설-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
'25. 12월 투자심의 승인
'26. 1월 이사회 승인
'26. 6월 이사회 승인(법인설립)

- (주요동향) '26년 6월 이사회 승인(자회사 설립)
'26년 7월 투자계약 및 SPA 체결(KIND↔ZEIT)
*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

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LX판토스, KIND, PIS펀드
- (사 업 비) € 129.7백만 (약 2,075억원)
- (사업내용) 총면적 108,977m² 규모 물류센터 5개동(Phase I: DC 1·2동, Phase II: DC 3,4,5동) 건설
- (추진현황) '24.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
'25.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
'25.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
'25. 12월 KIND 투자승인 /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
'26. 1월 금융종결
'26. 3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예정)

- (주요동향) '26.7. Phase II 잔여 부지(DC4, DC5) 임대차 계약 체결

⑤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통합 관제센터

< 사업 개요 >

- (주관기관) 이에스이(주), (주)아이티코어스, (주)영국씨애피
- (수원정부) 폴란드 루블린시청
- (사업기간) '26.4.1 ~ '26.12.26.
- (사업예산) 700백만 원
- (사업내용)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과 통합 관제센터 구축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기존 교통관제 고도화 및 실증사업 수행
- (추진현황) '26. 4월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및 현지조사 수행, LOI 체결(4.28)
'26. 6월 MOU 체결(루블린시와 스마트시티 및 루블린 시 사업 추진 협력)
'26. 8월 현지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8.4.)
'26. 9월 국내 초청 역량강화연수 예정
'26.12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폴란드 현지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8.4)

⑥ 우크라이나 EIPP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전략 10개년 및 3개년 실행 계획 수립 사업

< 사업 개요 >

- (주관기관) 안진회계법인(재무), 현대경제연구원(경제), 스마트도시건축학회(도시)
- (수원정부) 우크라이나 경제농업환경부
- (사업기간) '26.2.13. ~ '26.9.10. (210일)
- (사업예산) 1,241백만원 (재위탁 용역금액 818 백만원)
- (사업내용)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구조를 클러스터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함
- (추진현황) '26. 4월 착수보고회 개최 완료(온라인, 27일)
'26. 6월 세부실태조사 수행/URC 폴란드 행사참여(6.22 ~ 6.28)
'26. 7월 역량강화연수 및 중간보고회 개최(국내, 7.19 ~ 7.25)
'26. 9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착수보고회 개최(4.27), 현지조사 및 URC 재건회의 참석(6.25~26)

참고	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
-----------	------------------------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담당기관	추진현황 및 계획
키 이 우 교 통 마스터플랜 (완 료)	• (1단계)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 우선사업 선정 및 pre-FS 등 * '23.12~'24.11 (수행 : 유신 컨소시엄) • (2단계)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 '24.5~'24.11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	KIND LH	•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키이우, '25.4월) • 후속사업(디지털교통 플랫폼 구축) 국토교통 ODA 추진
우만 스마트 시 티 마스터플랜 (완 료)	•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 * '23.9~'24.4(수행 : 제일Eng, 수자원공사 등)	KIND	•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24년 4월) • EDCF 사업화 모니터링 (계속)
보 리 스 필 공 항 현대화 등 재 건 (추 진 중)	•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 공항 확장·개발 (활주로 등)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한국 공항공사	• 현대화(공항시스템 개선) : '24년 외교부 ODA 선정, PMC 선정 ('24.10월) • 공항MP :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 확장FS :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24.12), 최종보고('25.12)
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 (완 료)	•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환경산업 기술원	• Pre-F/S 수행결과 최종 평가 완료('26년 1월) * 환경부 F/S 지원사업 • 현지상황 모니터링 후 후속사업 추진여부 결정
댐 재건 및 현대화 등	• 카호우카 댐,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수자원 공사	• '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수자원시설 정책, 기술자문), 용역 발주 예정('26년 3분기)
철 도 노 선 고속화 등 (추 진 중)	• 우키이우~폴 바르샤바 구간 중 4개 구간 타당성 조사 ①키이우~지토미르~루츠크~국경(약 375km) ②키이우~빈니차~리비우~국경(약 580km) ③키이우~지토미르~리브네~리비우~국경(약 505km) ④키이우~지토미르~루츠크~리비우~국경(약 525km) *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50→150km/h) 추진 중	철도공단 (* 운영 등 코레일 협업)	•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5년 12월) 및 착수 보고회 개최('25.3월) * 외교부 ODA 지원사업 •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26.12월)